

제9차 국민행동 규탄대회, 종각타워 앞에서 개최



“양심팔이 병역거부 추방”

제9차 국민행동 집회가 열린 가운데, “병역거부자들이 특정 종교를 벌미로 군대를 회피하는 길이 열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 노형구 기자

17일 오후 2시부터 종각 타워 앞에서 제9차 국민행동 집회가 개최됐다. 특히 이번 집회는 지난 1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규탄했다. 주최 측인 국민행동은 성명서를 내며, “병역거부자들은 특정 종교를 벌미로 군대를 회피하는 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그들은 “특정 종교는 선택된 자신들만 예호와의 백성이며, 국가와 공동체를 사탄의 동맹체, 마귀의 피조물로 상정하고 배격하는 단체”라며 “따라서 이들은 군복무, 투표, 납세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체의 행위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국민행동은 최근 지상파 방송국의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우선 그들은 “팩트체크라는 이름의 지상파 방송사 뉴스는 ‘대법원 판결의 당시자인 오모 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주장하며, 세속의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는 것은 바로 성서의 가르침 때문’이라는 보도 내용을 전했다.

반면, 국민행동은 지난 1일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이 사건(양심적 병역거부에서 피고인(오모 씨)은 특정 종교 교리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무장해제와 평화주의, 납세거부, 종교우월까지 연계하여 주장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국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또 국민행동은 “대법원이 직접 나서 ‘양심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특정 종교 신도들에게 병역회피의 특혜를 줄 것은 옳지 않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회 입법 없이 사법기관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87명이었으나 대체복무 도입 후 약 2만 7천명까지 그 수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행동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반대하는 것이 소수자에 대한 포용성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며 “국토방위를 토대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질서가 굳건히 수호될 때, 이를 바탕으로 소수자 인권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이것이 진짜 인권, 진짜 양심, 진짜 평화를 위한 길”이라며 성명서 낭독을 마무리 지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1항의 위헌 판결에 따라, 대체복무제의 입법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특정 종교 신도인 오모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조급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대법원 판결 당시 이기백, 김소영 대법관은 “이 사건은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회입법을 기다린 후 별리적 판단을 하는 게 마땅하다”며 찬성의견을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행동은 “최근 취업포털에서 실시한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국민의 82.8%가 ‘병역거부 무죄판결에 부정적이거나 담합’”라고 목소리 높였다. 하여 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군대에 다녀온 국민들은 비양심적이라 말인가”라고 되물으며, “이제 어느 누가 국방의 의무를 신성한 것으로 여기겠나”고 성토했다. 특히 그들은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과 대체복무 도입은 양심을 빙자한 병역회피자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예로 “독일의 경우, 1961년 574명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도입 이후 한 해 약 13만 6천명 까지 증가했다”며 “대만의 경우도 병역거부자에 한해 87명이었으나 대체복무 도입 후 약 2만 7천명까지 그 수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행동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반대하는 것이 소수자에 대한 포용성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며 “국토방위를 토대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질서가 굳건히 수호될 때, 이를 바탕으로 소수자 인권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이것이 진짜 인권, 진짜 양심, 진짜 평화를 위한 길”이라며 성명서 낭독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규탄 집회에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도 참여해 발언했다. 그는 “정부

가 언론의 공정성을 외친다고 하지만, 정작 언론을 편향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며 “정부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역차별 받는 건 전제주의”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만 양심이고 반대 의견은 비양심이라 한다면, 양심이란 게 고작 특정 종교 종교적 교리를 지지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방 의무를 행하는 국민들을 비양심이라 매도하는 것”이라며 “병역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민들은 역차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그는 “모든 국민은 공정한 취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간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돌아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달리 대한민국에서 특정 종교가 성역이 되어 보호 받는 것인가”라며, 나아가 “왜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혐오자라 역차별 받는 건가”라며 목소리 높였다.

이에 그는 “소수자가 정치권력에 힘을 얻고 성역화 됨으로, 대다수 국민은 역차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가 문을 잠그고 자는 이유는 바깥 낯선 사람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양

심적 병역거부, 반동성애, 이슬람 난민 문제는 인도주의 문제가 아닌 소수자 보호로 인한 국민 대다수의 권리 침해 문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세금을 충실히 내는 대한민국 국민, 병역을 이행하는 대한민국 국민, 동성애가 아닌 정상적 가족 질서를 외치는 국민 등 정상적인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민이 먼저”라며 밝언을 마무리 했다. 노형구 기자

“예수를 첫째로 두는 목회세습인지 물어야”

기독교학술원 월례포럼, ‘목회세습과 바른승계’

기독학술원은 16일 오후 2시부터 온누리 교회 양재 성전에서 ‘목회세습과 바른승계’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인호 박사(숭실대학교 대학원 외래교수 역임, 이스라엘 연구소 소장)가 ‘성경은 한국교회의 세습을 어떻게 맡히는가?’를 놓고 발제를 했다. 먼저 그는

“새로 한국기독교의 대표적 화두는 바로 세습이며,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교회 세습, 교차세습, 정검다리 세습, 키션세습(건너뛰기 세습) 등 교묘한 방식의 변칙세습으로 딜임박사 대물림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독교 내에서도 천반양론의 논쟁과 법적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학적인 헤답을 제시하는 게 살아있는 신앙인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곧바로 그는 한국의 여러 교단에서 제정한 세습 방지법을 소개했다. 그는 “2013년 9월 25일 기독교감리회, 예장 통합 교단, 기독교장로회가 세습방지법을 이라고 덧붙였다. 즉 제사장직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습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하나님은 구약성경 시대에 제사장 직분에서 세습 제도를 허용하셨다”며 “대제사장은 더러운 죄와 부정을 제거하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중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 그에 의하면,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가문 장자계열에서 승계했으며, 특히 아론의 대제사장 직위는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승계했다. 다만 그는 “네 아들 중 위의 두형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과 정하신 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민수기 27:18-21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민수기 27:18-19)

이어, 그는 “다윗 시대는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과 이다발 계열의 아비아달이 함께 수행했다”며 “솔로몬 왕 시대 이후

아비아달 제사장 집안은 몰락해, 사독 가문이 단독으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후 그는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 사독 가문은 사두개파를 형성해 정치성향이 짙었고, 하여 로마 등 이방 통치자에 의해 임명되기도 하고 이 권에 개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세습 자체를 악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사립을 선출하는데 있어 다른 요소들에 근거하기보다, 그 사람이 친척이라는 이유는 하나만으로 선출한다면 그것이 바로 족벌주의”라며 “구약과 신약은 족벌주의 편애를 금한다”고 지적했다. 즉 그는 “제사장직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습을 허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친척이라는 편애로 사람을 선출한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재차 말했다. 그가 제시한 성경구절은 다음과 같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찌”(레위기 19:15)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 할 때에 낮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잠언24:23)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를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어 하지 말라”(디모데전서 5:21)

또한 그는 “구약의 레위족속은 땅 분배 기업으로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이라며, “제사장은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당시 지도자들의 타락을 책망하신 것”이라며 “교회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고, 새 땅 냉어가 되고자 순전함과 진실함을 생명으로 여기는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너희는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냉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냉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땅으로 하자”(고전 5:6-8)

하여, 그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어울리는 누룩 없는 땅으로 교회의 지향점”이라며 “예수 없이는 교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예수를 두 번째로 다음으로 섬기는 교회나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라며 “한국

교회 세습에 예수가 ‘양의 문’으로 작동하는지 되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그는 요한복음 10:7-8, 11을 제시했다.

“그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요 10:7-8)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나”(요 10:11)

즉 그는 “자신의 공로와 권리,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에서 나오는 번듯하고 허를 좋은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들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선한 목자인지, 예수가 우선으로 문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세습 목회자들의 대답을 듣고 싶다”고 반문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승구 합신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이상원 종신대 신학대학원 원장 겸 경총장이 발제했다. 논찬자로는 소기천 전신대 신약학 교수, 김윤태 백석대 조직신학 교수, 안계정 평택나눔교회 담임 목사가 참석했다. 설교자로는 김균진 연세대 명예교수, 개회사로는 김영한 살롱나비 상임대표 겸 숭실대 명예교수가 전했다.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 위안부 피해할머니와 함께 하겠다” 한국교회일천만기도운동본부, 나눔의집에 성금 전달

지난 10월 28일 ‘한국교회일천만기도대성회’를 통해 광화문 광장을 한국교회 화합과 일치의 장으로 만들어낸 ‘한국교회일천만기도운동본부’가 기도대성회가 끝난 이후에도 당일 모인 현금을 통해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교회일천만기도운동본부는 지난 11월 7일 제136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해 성

금 500만원을 전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금자리인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을 방문해 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나눔의집은 태평양전쟁 말기, 일제에 의해 성직희생을 강요당했던 생존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살고 있는 삶의 터전으로 7명의 할머니가 생활하고 있다.

특히 이날 1943년 중국 평톈, 신장, 무

장 윤보환 감독, 사무총장 정여균 목사, 진행총괄 신광수 목사는 나눔의 집을 찾아 나눔의 집 앞 마당에 있는 추모비 앞에서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 함께 위로하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1943년 중국 평톈, 신장, 무

해를 당한 강일출 할머니는 “사과도 지금은 건 싫어요”라고 아픔을 표현했다.

윤보환 감독은 할머니들의 이런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면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한국교회가 힘쓰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기도하니까 일본이 사죄하고 보상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겠다”며 피해할머니들을 위로했다.

윤보환 감독은 이번에 전달되는 성금이

“지난 10월 28일 진행된 한국교회일천만기도회에서 모아진 한국교회의 정성”이라고 소개하고 “한국교회가 민족교회로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교회일천만기도운동본부는 지난 11월 7일 정기 수요시위 후 한국순교자기념사업회에게도 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박용국 기자

다시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12절)

◆ 베드로 전서
3장 1-12절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1.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흑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2.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3.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5.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 사리가 아브라함을 주와 청하여 순종한 것 같아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팔이 된 것이라

7.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 같아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아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깊이 말고 도리어 복을 별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혼을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 관계란 무엇일까요?

'관계'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일방적'인지를 깨닫으려면 운전할 때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운전을 조금 빨리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속주행을 하거나 안전운전을 하는 사

람으로 인해 앞길이 막혀 있다면 속이 탈 것입니다.

운전을 조금 느리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빨리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난폭함에 자신이 얼마나 분노하거나 상대방을 경멸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스캇 솔즈의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에 나오는 글을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코미디언 조지 칼린은 세상에 두 종류의 운전자가 있다고 말했다. 바보 운전자와 미치광이 운전자다. 나보다 느리게 달리면 바보고, 나보다 빨리 달리면 미치광이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향해 우리가 가지는 감정 '똑바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확한 fact로서의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 똑바르다는 기분이 아닐까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통제의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서 기자가 부부간의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관계가 적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때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면서부터입니다. 아니, 깨어지지 않는다 해도 통제하려는 사람과 그 통제를 힘들어하는 상대방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 위에서 세워지는 가정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적인 모습을 본받아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에서도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하면서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관계의 시작은 '나'의 통제로부터 '하나님'의 통제로 권한을 이양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너 목사아들이... 목사 아들답게... .'라는 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언의 통제 아래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통제의 압박을 느끼는 순간, 그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저 역시 우리 아이들을 참 힘들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눈총을 받거나 피해가 가는 것을 못 견뎌 해서 통제하려고 했던 적이 참 많기 때문이죠.

물론 바르게 훈계하는 것이 잘못된 것 이 아니라, 늘 부모의 기준에서 아이들을 보고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스캇 솔즈가 아주 멋진 표현을 했는데, "최고의 작가에게 훈수를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쓰는 일은 내 뜻이 아닙니다. 걱정이 되긴 하지만 주님께 맡겨야 한다. 특히 자기 자녀의 이야기를 쓸 권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건 정말 힘든 이다. 그래도 내려놓아야 한다. . . 우리가 통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르시는 것이 향상 더 낫다."

◆ 중요한 신앙적 태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아내'들을 무척 불편하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일관성 있는 견해입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흑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 한 단서가 되는 말이 있다면 '이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언급한 것과 같이, 아내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하기에 앞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 위에서 세워지는 가정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적인 모습을 본받아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순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도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말로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행실로 보여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동'이지 '강요'가 아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어 하는 아내들이 있으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을 구원하는 것은 진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

입니다.

'순종'하는 이유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순종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진정한 단장과 태도는 이러합니다. 4절 말씀.

4.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unfading beauty of a gentle and quiet spirit" - 'inner self'

'하나님 앞에 값진다'라는 말을 베드로 2장과 연관 지어 묵상해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합니다.

언제 우리는 조용할까요?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할 때,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아닌가요?

혹 우리가 상대방 보다 말을 많이 하 있고 대로 느끼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자기중심이 되었거나 고집된 사람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요?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 보다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단계에 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고집스럽게 되기

이름이나 어떤 것인지를 한 쌍씩 이야기 식으로 들려주던 원고를 모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TV 드라마 보다 더 흥미

진진하게 사람들은 설교를 기다렸고 긴

장갑을 가지고 설교를 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원석의 책에 나오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세 수도사"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외딴 섬에 세 명의 수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주교가 이 섬을 찾았습니다. 보니 이 수도사들이 주기도문조차 모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에 세 다 주

기도문을 알도록 가르쳐 주고 만족하며 섬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보니 세 수도사가 바다 위를 걸어서 따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배에 올라와서 말하기를 주기도문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 집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린 시절 수련회에 가서 혹은은 여름성

경학교를 하면서 '성경 암송대회'라는 것

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조금 더 나

가서 밥을 먹을 때면 한 구절 암송하고 학점을 받아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경대로 살기 대회'를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때 온유하고 예의가 바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살다면 아내와 남편이 상처를 받는 것은 커다란 사건보다는 아주 소소한 언행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소함은 의식하지 않는 부주의함에서 기인하는 것들이죠.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처를 줄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면,

더욱 행동에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알고 외운 지식을 자랑하는 것 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낸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

찰스 웰데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원석이 쓴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의 원제목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 (In His steps)이고 부제가 "What Would Jesus Do?"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웰데이는 토피카 시에 위치한 센트럴 회중교회에서 매주 저녁에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

이 어떤 것인지를 한 쌍씩 이야기 식으로 들려주던 원고를 모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TV 드라마 보다 더 흥미 진진하게 사람들은 설교를 기다렸고 긴 장갑을 가지고 설교를 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원석의 책에 나오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세 수도사"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외딴 섬에 세 명의 수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주교가 이 섬을 찾았습니다. 보니 이 수도사들이 주기도문조차 모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에 세 다 주

기도문을 알도록 가르쳐 주고 만족하며 섬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보니 세 수도사가 바다 위를 걸어서 따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배에 올라와서 말하기를 주기도문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 집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린 시절 수련회에 가서 혹은은 여름성

경학교를 하면서 '성경 암송대회'라는 것

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조금 더 나

가서 밥을 먹을 때면 한 구절 암송하고 학점을 받아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경대로 살기 대회'를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설교·칼럼

윤리적 실천보다 자연스런 인간적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더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규칙을 정해놓고 행하는 것을 때로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규칙을 세워 놓아도 또 부족한 규칙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규칙을 세우면 세울수록 자신들의 부족함을 발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세워놓은 규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성품에서 자리 잡게 된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습관'을 만들기 위에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서 '의무'로 느껴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의무로 느껴지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품'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의무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품이라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의식하지 않아도 숨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식'은 '가이드라인'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남편'에 대한 권면이나옵니다. 7월.

남편들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을 향한 권면이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첫째는, 아내는 너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둘째는, 'respect'해야 합니다. 자신보다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respect'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동거'라는 말은 같은 집에서 산다는 것인데, 참다운 동거 즉 삶을 같이 하고

있었는지,

'아내를 안다는 지식'이 정말 아내를 이해하는 차원에 있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어떤 이해인가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연예할 때는 아내가 참 '약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보니 늘 강하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아내는 이 세상에서 살다 헤어질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이어갈 동역자임을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게 될 것임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시작할 때 언급한 내용인데, 베드로서 기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깨어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통로인 기도는 막혀 버린 것입니다.

즉, '존재'에 대한 말이 아닐까요?

남편으로서 올바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아내에게 요구했던 것이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4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insight of God) 와 '지식을 가지고' (considerate)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은 피상적이거나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은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조나단 애드워즈는 심지어 마귀도 피상적인 의미에서 선한 행위로 '바른'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옳은 일'

이상의 무엇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이 많이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에게도 누가 개척을 한다면 어떤 것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제자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자훈련'을 통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제자가 '해야 하는 일'을 얼마나 세련되게 수행하느냐를 가르친 것은 아닐까요?

제자가 되지 못했는데, 제자가 되는 일을 가르치는 것이 한계가 분명하지 않을까요?

존재가 변화되지 않은 행위란 언제나 불안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통하여 복이 유통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크리스천 작가였던 유명한 마크 트웨인은 이런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데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악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 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함께 있도록 했

8-12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

음을 같이하여 동장하며 형제를 사랑하

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

고

11.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배웠던 2장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부르심 가운데서 다시 관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뿐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아내와 남편,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들은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8-12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입니다.

9절 말씀은 참 인상적이고,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이 유통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크리스천 작가였던 유명한 마크 트웨인은 이런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데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악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 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함께 있도록 했

8-12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

음을 같이하여 동장하며 형제를 사랑하

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

3부 -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일,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일.

오히려 복을 비는 일...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

가 누리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복음의 진리를 좁각하는 것은 'easy way'와 'true way'를 종종 동일시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서 기자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너무 삶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삶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진리만 깨닫는다 해도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라고 항변합니다.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아름다움'과 연결되어 있다면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요?

2016년 8월 20일 연합신문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학교] 물건 대신 가제은 "헬리콥터 부모 돌아가세요!"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녀들을 버려놓는 것은 부모라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인들을 버려놓는 것은 잘못된 교회와 목회자들이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쉽게 살아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왜 필요하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려움 가운데 진리의 길을 발견하도록 하는 곳이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들 물건 대신 가져온 부모에게 돌아가는 공지문이 붙은 미국 아칸소 주 한 고교[소년]을 위한 가톨릭 고교 홈페이지 캡처]

"아들이 학교에 가져오는 것을 잊고 나온 점심 도시락, 교과서, 과제를 등을 대신 가져오셨다면, 몸을 돌려 학교 건물 바깥으로 나가세요. 당신의 아들은 당신이 종전할 때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 표지판인 '스톱 사인'을 공지문에 붙여 출입 금지를 강조했다.

스티브 스트래슬 교장에 따르면, 사립 학교인 '소년'을 위한 가톨릭 고교는 오래전부터 학생들이 깨끗한 지침들을 부모가 가져다주는 것을 금지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방침을 잊고 최근 학교로 오는 부모가 늘자 스트래슬 교장은 공지문을 붙였다. 스트래슬 교장은 "도시락을 안 가져온 학생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 학교 식당에서 배를 채울 수 있고, 책이나 체육 비품 등은 학교에 여분이 있는 만큼 선생님에게 말해 대여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엄마나 아빠가 없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립 능력과 책임감을 키워주는 우리 학교의 여러 방침 중 하나"라면서 "우리 학교 학부모 중에 불만을 터뜨린 이는 없지만, 모든 학교에 이 원칙을 권유하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녀들을 버려놓는 것은 부모라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인들을 버려놓는 것은 잘못된 교회와 목회자들이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쉽게 살아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왜 필요하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려움 가운데 진리의 길을 발견하도록 하는 곳이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

“北결핵 퇴치, UN안보리 제재로 차질 빚고 있어”

유진벨 재단 방북 특별보고 “응급 인도주의 지원 물품에 한해 면제 조치 가능”



유진벨 재단 회장 스티븐 린턴 박사

북한의 결핵 퇴치 관련 인도주의 사업을 진행해온 유진벨 재단 대표 스티븐 린턴 박사(56)은 16일 오전 10시에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진벨 재단 회장인 스티븐 린턴 박사와 최세문 유진벨 재단 이사가 참여해, 북한 다제내성 결핵 치료에 필요한 약품과 물품에 대한 제재 해제를 적극 촉구했다. 북한에는 현재 다제내성결핵 환자

가 약 5,700명 있으며, 글로벌펀드와 세계보건기구가 약 400명, 유진벨 재단은 약 1,000명에게 치료약을 제공해 왔다. 지난해 가을 북한 당국은 유진벨 재단 측에 다제내성결핵 치료를 3,000명으로 확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어 유진벨 재단 회장 스티븐 린턴 박사는 “현재까지 1000명에게 다제내성 치료약 제공하는데 200만 달러가 소요됐으

며, 이는 소규모 재단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이라며 “유니세프 같은 글로벌 펀드, 대한민국정부와 협력해 왔지만 유엔 재제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현재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에서 일반 결핵과 달리 다제내성 결핵에 일반 약제를 투여하면 내성이 증강 된다”며 “그래서 ‘진액 스퍼트’로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조기 진단이 가능해, 다제내성 결핵환자에 대한 선택적 약물 투여가 용이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결핵 내성을 없애고 조기 치료가 가능하게 된다”며 “결핵의 디약제 내성 퇴치 및 결핵 치료약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다제내성 결핵 환자에게 일반 결핵 약으로 투여하면 내성이 늘어나 감염률이 늘어난다”고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디약제 내성 결핵 퇴치 진단 기인인 ‘진액 스퍼트’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해제를 호소했다. 이를 위해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금속 물품 반입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진액 스퍼트 사용에 대한

단체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북한 보건성도 유진벨 재단에 결핵 퇴치 요청을 적극 하고 있으며, 진액 스퍼트는 순수 보건의료 사업이기에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에 금속, 화학 등 원료 반입을 금지하는 명시하고 있다. 무기 제조 가능성을 염두 해 유엔 안보리의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진액 스퍼트 같은 응급 인도주의 물품도 제재에 걸려들고 있어 북한 결핵 퇴치 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엔은 현재 응급 인도주의 물품 항목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다.

단, 정부, 유엔, 개인이 신청할 때만 가능하며, NGO 단체는 정부를 통해서만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물품 면제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스티븐 린턴 회장은 “현재 유진벨 재단은 평양에 결핵 치료 병원을 세워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음암실, 격리실 등 병원 구축에 필요한 금속 물품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걸려들어 이 또한 원활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여, 그는 “남한 정부가 적극 나서서 개성공단에 결핵 전문 치료 병원 및 실험실 구축하도록 지원 요청 한다”며 “개성공단은 전기 공급이 원활하고, 서울과 거리가 가까워 결핵 치료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개성공간에 실험실이 구축된다면, 결핵 환자들의 가래 분석을 통해 결핵 감염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그는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 간 공동사업기지에 남한 정부가 단독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며 남한 정부의 지원을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다”고 힘주어 지적했다. 앞서 밝혔듯, 프랑스 캐나다는 NGO 단체가 북한 인도주의 사업에 용이하도록, 의약품, 건축 자재 등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걸리는 물품 해제를 적극 요청해 활동이 용이해졌다. 유달리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온적이고 유보적”이라고 꼬집었다. 하여, 그는 “정부가 적극 유엔 안보리에 제재 해제 요청했다.

남북 교류가 원활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유진벨 및 북한 인도주의 단체를 중심으로 결핵 치료 지원이 더디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남북 교류에 있어서 남한 정부가 독자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없다면, NGO 단체들이 북한에 적극 결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북 교류가 채울 수 없는 공백, 가령 결핵 같은 의료 보건 사업들은 국제기구들이 채워 줄 수 있는 부분이기에 남한 정부의 조율과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가령 그는 “현재 프랑스는 자국 NGO 단체들이 북한 인도주의 사업 하는데 있어, 유엔 제재에 해당 되는 물품을 면제 받도록 정부 차원에서 직접 유엔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평양 등지에서 결핵 전문 병동을 세우는 데 있어, 유엔 제재 위원회의 면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진작이 지지부진하다”고 밝혔다. 음암실, 격리 병동 등을 구축하는 데 있어, 특수 금속 물품이 필요한데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으로 반입이 막힌 상황이다. 특히 그는 “병원과 마찬가지로 다제내성 진단 기구인 ‘진액 스퍼트’도 유엔 제재에 걸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그는 “인도주의적 문제라면 남한 정부가 발 벗고 유엔 안보리에 제재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 남한 정부는 답답하게 신청을 안 하고 있다”고 힘주어 지적했다.

앞서 밝혔듯, 프랑스 캐나다는 NGO 단체가 북한 인도주의 사업에 용이하도록, 의약품, 건축 자재 등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걸리는 물품 해제를 적극 요청해 활동이 용이해졌다. 유달리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온적이고 유보적”이라고 꼬집었다. 하여, 그는 “정부가 적극 유엔 안보리에 제재 해제 요청했다.

특히 그는 “개성공간에 실험실이 구축된다면, 결핵 환자들의 가래 분석을 통해 결핵 감염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그는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 간 공동사업기지에 남한 정부가 단독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며 남한 정부의 지원을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다”고 힘주어 지적했다.

정을 해서, 유진벨을 비롯한 여러 NGO 단체가 북한에 의약품, 건축 자체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움”을 호소했다.

나아가 그는 “현재 세계 결핵예약 기금(GDF)에서 일반 결핵 약을 얻는데 100만 달러가 든다”며 “정부 차원에서 얼마든지 자금 지원이 용이한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그는 “통일부 등 정부 관계자에게 요청했는데, 그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신청에 있어 매우 미온적 이었다”고 밝히며, “북한 나무 심기 사업뿐만 아니라, 사람 목숨이 달린 결핵 퇴치 문제에 있어 남한 정부가 발 벗고 나서 주기”를 적극 당부했다.

또 그는 “어떤 면에서 남북 관계 특히 비핵화 현안에 바쁜 것도 이해가 되지만, 국제기구, 한국 및 국제 NGO 단체가 북한 의료 보건 인도주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한국 정부가 격려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그는 “남북 관계가 경색 될 때 글로벌 펀드들이 북한 결핵 퇴치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섰다”며 “그러나 현재 남북 관계 개선으로 유니세프 같은 국제기구들은 북한 인도주의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로, 그는 “어찌 보면 남북 관계 개선으로 남한 정부가 북한 결핵 퇴치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란 방침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문제는 한국 정부가 그 책임감을 느끼고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남북교류가 두터워 진다면 남한 정부가 앞장서서 결핵 퇴치 등 보건 의료 지원에 앞장서야 하는데 그리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빈틈 속에서 북한의 결핵 환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 다음세대 부흥의 핵심은 지상대명령 따르는 삶”

서울신대 전도전략연구소 제19회 정기세미나, 남빈 홍대 뉴송처치 담임목사 발제

서울신학대학교 전도전략연구소는 ‘가나안 성도, 신천지 활동 분석 발표’라는 주제로 최근 제19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경선 목사, 남빈 목사가 발제를 했고, 박대환 목사, 오승철 목사가 논평을 했다. 뿐만 아니라 하도균 서울신학대 선교학 교수와 함께 교회 학교도 참여해 총평 및 마침기도를 했다.

먼저 남빈 홍대 NEWSONG교회 담임 목사가 세미나에 참여해, 실제 목회 현장을 전했다. 그는 “다음세대 회복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전도와 양육”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무엇보다 다음세대는 다시금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소망”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교회 위기 속에서 많은 시대적인 분석과 문화적 접근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적 사역인 ‘전도와 양육’이 살아나야 한다”고 강

조했다. 다시 말해, 그는 “다음세대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청소년, 청년 등 다음세대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며 “위대한 전도자 웨슬리를 누구보다 ‘전도와 양육’에 집중했던 사역자였다”고 역설했다.

“세계는 나의 교구”라 외쳤던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의 말을 인용하며, 그는 “도시와 민족의 부흥을 주도했던 웨슬리처럼 다시한번 한국교회에 이러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 제자를 양육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그는 “현재 한국교회는 다음세대에 대한 복음전도와 양육으로 ‘문화사역’과 ‘집회사역’에 의존적”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서 문화사역을 놓고, 그는 “찬양, 음악, 영상, TV, SNS 등 다음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요소를 수단으로 사역하는 것”이라 전했다. 추가로 그는 “찬양집회를 개최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집회사역’ 또한 효과적”이라 덧붙였다.

다만 그는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문화사역’과 ‘집회사역’이 ‘전도’가 아닌 ‘인도’가 될 때 본질적 의미에서 전도와 양육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하도균 서울 신학대 선교학 교수와 쓴 ‘전도 바이블’(예수 전도단, 2014)을 인용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도는 교회성상을 위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데서 그치는 ‘인도’와는 사뭇 다르다. 교회성장을 위해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복음전도와는 다른 목적이 있는 행위다... (중략)... 물론 수적부흥과 번영의 감소를 위해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과 잘못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우려하는 바는 그것으로 얻는 유익보다는 역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다... (중략)... 그 역효과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동력을 상실한 채 일회적인 전도나, 일시적인 전도에 만족하며 그칠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전도는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립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이 복음화 될 때 까지 행해야 할 명령이다”

특히 그는 “문화적인 요소(찬양, 미디어

의 급속한 성장 동력을 전했다. 바로, 그는 “신천지는 체계적인 전도와 양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한 사람을 전도해 양육하고 그 한 사람을 또 다른 사람으로 재생산 할 수 있는 ‘주수꾼’으로 세우는데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모든 신천지의 성도들은 한 사람을 전도하여 복음방으로 데려오는 ‘전도자’, 복음방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는데 주안점이 있다”며 “신천지의 정식 성도가 된다는 말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라고 분석했다.

하여, 그는 “뉴송교회 및 한국교회

의 전도와 양육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보다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른바, 신천지의 내용은 잘못됐지만,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데 있어 그들은 적극적으로 성경의 원리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바로 예수께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라는 ‘지상 대명령(The Great Commission)’이다.

즉 그는 “문화적인 요소(찬양, 미디어

등)에 대한 관심이 우선순위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의했다”며 “결국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영혼을 회복시키는 양육과 제자 훈련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렇다면 뉴송 처치는 재생산이 가능한 한명의 제자를 어떻게 세울까? 바로 제자훈련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처치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이에 그는 “두 말씀을 종합하면 첫째, ‘복음을 전파하라’ 둘째, ‘제자로 삼아라’”이며 “따라서 교회의 핵심적 사역은 ‘전도’와 ‘제자삼기’의 두 가지 요소”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뉴송처치의 사역은 한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여 세울 수 있는 리더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우는 데 역할을 쏟았다”며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는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앙생활에 필요한 기초양육을 제자에게 1:1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뉴송 처치의 사역은 한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여 세울 수 있는 리더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우는 데 역할을 쏟았다”고 강조했다.

안녕 우주
HELLO, UNIVERSE
에린 엔트라다 켈리 / 이원경 옮김 / 320쪽 / 14,500원

★★★★★
2018 뉴베리 대상 수상작!
출간 즉시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인터파크 베스트셀러!!

일상 생활 속에서 벌어진 단 하루의 이야기!
못된 골목대장 ‘쳇’이 소심한 ‘비길’에게 끔찍한 장난을 치던 그날,
네 아이의 우주가 서로 얹히기 시작했다!
네 아이가 겪은 일을 그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LITERATURE FOR CHILDREN
2018 NEWBERY MEDAL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 미 아마존 베스트셀러 / 뉴욕, 시카고, LA 공공도서관 2017년 최고의 책 / 워싱턴포스트 2017년 최고의 책